



## 무상급식, 어떻게 볼 것인가?

글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시 무상급식 문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2월 30일 서울시 의회가 2011년도 서울시 예산에서 초중고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일방적으로 신설 또는 증액하기로 한데 이어 서울시가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서울시 무상급식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무상급식 문제는 진보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에서 지난 지자체장 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들고 나오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하면서 새로 당선된 진보 진영의 여러 시도 교육감들이 무상급식을 2011년부터 시행하려고 예산안에 반영하려고 하면서 갈등을 빚게 된 것이다.

본질적으로 왜 무상급식을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살펴보자.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무상급식이 복지 차원의 시대적 요구라고 내세우고 있다. 즉 모두에게 동일한 복지의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경제사정이 좋은 가정의 자녀까지 모두 무상으로 급식하는 것은 '부자 무상급식'이며 이는 정말로 복지혜택이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갈 복지재원을 고갈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는 심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여론조사에는 85% 정도에 달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찬성하므로 무상급식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무상급식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다. 즉 진보계열에서 제시하는 무상급식은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이며 진정한 복지의 향상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어차피 세금으로 물어야 할 돈인데 그 돈이 그 돈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는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소득 재분배 효과도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문제를 여론조사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요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는 것이 좋겠느냐, 안보는 것이 좋겠느냐를 물으면 대부분 안보는 것이 좋다고 대답한다.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시험 보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싶으나 다른 학생들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할 수 있다. 설사 자기의 견해를 피력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진보적 교육감들이 내세우는 체벌 금지, 학생들에 대한 성적 평가, 교원평가 문제 등은 교육이 가져야 하는 고유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검토보다는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느낌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고교평준화 문제도 그 효과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다수의 학부모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시행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여론조사식 의사결정이 국민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는 별개라는 것이다. 무상급식의 경우도 우선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 수 있는 문제지만 한정된 예산이 무상급식 중심으로 쓰이다 보면 더 시급한 곳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무상급식이 진정 국민의 복지보다는 정치적 계산과 선거용으로 쓰이는 것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성경에서도 이처럼 사람들의 여론에 대해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아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삼상 8:5)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의 제도에 대한 실상을 알게 하라고 명령하신다. 이에 사무엘은 왕이 백성들에게 병거와 말을 달리게 하고,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고, 백성들에게 자기 밭을 갈게 하고, 딸들을 궁녀로 삼고, 신하들을 위하여 백성들의 좋은 밭과 포도원, 양떼를 취할 것이라며 왕정의 실상과 문제점을 알린다(삼상 8:9-18).

성경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의 대표적 예는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시 146:9)에서 알 수 있듯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품도 성경에 자주 언급되고 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 15:11)고 하셨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한 복지혜택을 베푸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라는 거창한 이름 하에 무차별적으로 복지혜택을 베풀고 표를 사고자 하는 대표적인 인기영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보편적 복지는 복지재원을 고갈시켜 정말로 밥을 먹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돌아갈 복지혜택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성경은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일하기 싫어하거나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10)고 하면서 근면함과 자기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 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